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파국(破局)은 일이 잘못되어 끝났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판(局)이 깨지고(破) 망한 것이다. 경제 파국은 인 관계의 파국이나 하는 것은 위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거나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파국의 다른 뜻이 있다.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깨고(破) 새로운 국면(局)을 모색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국면 전환이다. 망한 것과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뜻이지만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부서져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간단한 맥락이다.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없다. 익숙한 나를 부셔야 새로운 나를 만난다. 굵은 것은 터져야 하고,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한다. 아픔이 두려워 굵은 것을 방지하고, 상처가 두려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손쓸 방법이 없게 된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도려낼 건 도려내고, 쳐내야 할 건 쳐내야 한다. 그것이 파국을 겪고 새로운 국면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고

파국(破局)의 역설

파국(破局)의 역설

최악의 상황(窮)은 변화(變)의 계기가 되고, 변화는 새로운 길(通)을 만든다. 일명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공변통(窮變通)의 파국 이론이다.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진화해 왔다. 우주는 파국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인간은 변통을 통해 생존에 성공하였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새로운 것은 파국을 통해 형성된다. 지난날 IMF 경제위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였고, 지구 환경의 파국은 환경 파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언제나 나쁜 일만은 아니다. 파국을 견뎌내면 변통(變通)의 국면이 펼쳐진다. 당장은 아프지만 파국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모두 안정과 유지를 원한다. 그래서 가능한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점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심각함을 느끼면서도 보려 하지 않는다. 파관과 회피, 방치와 도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과감하게 칼을 빼서 단숨에 얽힌 것을 끊어내야 새로운 길이 열리고 비소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파국의 역설이다. 맹자는 안락(安樂)의 편안함이 죽음(死)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우환(憂患)의 불편함이 삶(生)의 길로 들어선다는 역설을 살펴하였다. 파국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하여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안락을 거부하고 우환을 선택했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과 생존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기름, 방위명 대신 의미 담은 새 명칭으로

물론 초기에는 새로운 명칭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도 적지 않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명칭에 대한 거리낌도 없어지고 오히려 인천 남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전국 유일'의 명칭을 주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 미추홀구는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닌 자치구 스스로 명칭을 변경한 모범 사례로 꼽을 만하다.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인천 자치구는 물론 부산 북구 등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명칭 변경' 쟁결음이 나치고 있다. 광주에서도 무미건조한 방위 개념의 5개 자치구 명칭을 변경하지는 여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광주시청에서 각계각층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혁신하는 명칭 변경과 개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역 특색을 살리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거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새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동구'를 검색하면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물론 대구 동구, 인천 동구, 대전 동구, 부산 동구, 울산 동구 등이 뜬다. 그렇다면 '광주 동구'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우리나라에 구(區)제가 도입된 이후 광주는 1973년부터였으니 올해로 50년째다. 각종 참고 문헌에 따르면 동구는 광주 남동부에 있는 자치구로, 방위(方位) 말고는 별다른 뜻이 없다. 금남로와 충장로의 명칭이 각각 금남군 정충신 장군의 군호와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시호에서 따온 것에 비하면 미묘한 차이이다. 이러한 틀을 과감히 깬 자치구가 바로 '인천 미추홀구'다. 지난 2018년 7월 1일 인천 남구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 등을 고려해 옛 지명인 '미추홀(彌鄒忽)'을 따서 50년 만에 인천 미추홀구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종교칼럼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부모님께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하지 말라 하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이떠중이는 되지 마라' 고도 말씀하셨다.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셨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서 잘 살아갈길 바라셨던 것 같다. 다시 말해 아닌 것에 아나라고 하고 옳은 것에 옳다라고 하며, 악한 것에는 동조하지 말고 선한 것에는 언제나 힘써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이었다고 본다. 사람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고 싶은가?'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각자의 삶은 자라는 역사와 환경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에 좌우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우리 사회에 부조리가 많고 불의가 판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우리나라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까?

통을 당하거나 겪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은 방치이고 무관심이며 절망이 되어 폭력과 무자비함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확장하여 생각해보면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립을 지키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조건 없는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낸다. 지속적인 나눔은 다시 살 수 있도록 일시켜 주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 그런데 사랑과 나눔에 중립을 지키게 된다면, 사랑은 더 이상 수용을 잃고 생명도 탄생하지 못할 것이고, 나눔은 희망조차 포기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 머뭇거리다가 우리의 삶은 빛이 없는 어둠이 될 것이고 슬픔과 고통으로 비참해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매일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와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탐욕은 환경을 오염시켜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상 기온이 발생하여 이제는 자연 재앙에 누구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난 10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기후 위기는 정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유엔 사무총장도 교황의 기후 위기의 한계점에 가까워졌다는 말에 "인류가 지속적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고 경고했다. 모두가 고통을 당할 것이 예측된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되는 우리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것인가?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안전사고에 올스톱 기아차, 시스템 점검 계기로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이 가동 중단 사흘만에 생산을 재개했다. 정상 가동은 반길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취약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의 부품 공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동 중단은 1차 협력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단이 됐다. 지난 7일 40대 근로자가 작업중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부품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데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이 올스톱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위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문제는 협력업체 한 곳의 공장이 멈추자 150여개 협력업체와 광주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시스템에 있다. 부품업체와 완성차업체가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산업 시스템을 감안하더라도 재고가 하나도 없어 생산라인 전체가 멈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은 광주 경제의 핵심으로 광주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직접 종사자만 1만 여 명이 넘고 간접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총 2만 5천 명에 달한다. 광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 노동부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어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부품 공급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갈수록 강화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광주공장은 물론 협력업체들까지 안전사고 위험 요소는 없는지 평소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사고를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안방의 농약'으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윗그레 광주시 동구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지역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광주-전남 피해 신청자는 364명(광주196명, 전남168명)이다. 이중 정부에서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221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1%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3년전 아내를 잃은 김태준(70)씨는 "살균제는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아내 박씨는 살균제로 인해 10년 넘게 투병생활을 해왔고 16차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이런 이해 김씨는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고 생업을 위해 화물운송업을 시작했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독성 화학물질 관리감독 소홀로 초래된 명백한 환경 재난이다. 공식집계로 발표된 사망자 수가 1100명에 이르고 천사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3900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병원비 지원 등 기업들의 구제 비용 이외에는 개인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정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이나 배상을 서둘러야 한다. 해당기업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발 방지 및 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無等鼓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은 무엇일까?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DNA의 쌍크로مول이 제일 높은 영장류이다. 영장류 중에서도 인간과 용모가 가장 비슷한 원숭이, 장기(심장)가 제일 흡사한 돼지를 각각 인간의 조상으로 설정한 소설이 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1999년 출간한 소설 '아버지들의 아버지'는 원숭이와 돼지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인류의 시작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인류 진화의 수수께끼를 밝혀 나가는 과정이 즐거이인 데, 결말 부분에서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인 주인공 'G'가 돼지와 교접해 인류가 탄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작가가 외견상 인간의 사촌이랄 수 있는 원숭이와 동물의 장기 중 가장 중요한 심장의 모양·크기가 인간과 똑 닮은 돼지를 부모로 설정해 이유가 된 작품이다. 기묘한 발생인데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부모 한쪽이 돼지라는 점에서 읽고 난 후 찜찜함이 남는 소설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돼지라는 상상을 하면 그리 유쾌하지는 않지만 실제 돼지와 사람은 심장의 크기와 형태, 심지어 위치까지 거

의 같다. 이 때문에 돼지 심장은 심근경색 중 수술을 위한 실습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간에게 이식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전남대병원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에서 배운 돼지 심장실습을 토대로 1996년 국내 최초로 '돼지 심장 실습실'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3698마리의 돼지 심장실습을 통해 SCI(국제과학논문색인)급 논문 386편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80명의 석·박사를 배출했다. 돼지 심장실습이 심근색종환자 연구와 치료의 교과서인 셈이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이 지난해 1월 에 이어, 올 9월 사상 두 번째로 유전자 조작한 돼지 심장을 심장병 환자에게 이식했지만, 이 환자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6주만에 숨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장기가식을 대기하다 약 3000 명이 숨졌으며, 미국은 매년 6000명 정도가 수술 받지 못한 채 사망한다. 돼지 심장에 대한 연구가 더욱 성과를 내 심근색종 수술의 발전은 물론 심장병 환자의 돼지 심장이식도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령을 준수합니다